

■ **민주 이해찬號** 출범...과제와 전망

갈등수습·정권교체 '순항' 할까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에 이해찬 상임고문이 선출됐다. 이 대표는 연말 대선을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이 대표는 6·9 전대 직후 본격화될 대선 주자들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경선 효과를 극대화해 본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김한길 후보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지역순회경선에서 '이해찬 대선론'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후보가 이번을 일으키고 돌풍을 불러오면서 두 후보 간 갈등이 시작됐다. 또 이 대표

의 선공으로 시작된 2007년 7월 사학법 재개정 책임론은 양측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제기됐던 불공정 경선 시비로 이 대표 측에 대해 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런 김 후보 측과의 갈등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으로 대표되는 친노(친노무현) 비판 세력을 우군화할 수 있느냐가 향후 원만한 당운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서 파생돼 온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중북(從北)론, 색깔론 시비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들 이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경우 득실에 대해선 정치권 안팎에서도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색깔론 시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향후 대선 정국의 불투명성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야권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것도 그에게 주어질 임무다.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를 '신매카시즘 광풍'이라며 정면대결 방침을 선언한 바 있어서 색깔론 공방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최대 과제는 대선 승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야 대선

주자 중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이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의 야권 주자 누가 본선 주자가 돼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경선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후보군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며 본선에 빠지게 될 경우엔 야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대선 승리 자체에 적신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김두관 '입김' 훨씬 세졌다

손학규 '침울'...정세균·정동영 '체면'

민주 전대, 대권주자 득실

이해찬 후보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막을 내린 6·9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우호적인 것으로 비쳐져 상당한 역풍을 맞았지만 이해찬 후보의 당권 장악으로 당내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대선 정책과 전략 등을 가다듬을 동안 출마선언문을 작성, 오는 17일을 전후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김한길 돌풍'의 진원지로 평가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친노 진영을 기반으로

한 이해찬 대표 체제의 등장으로 대선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7월로 예정된 김 지사의 출마 선언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오는 12일 경남도청 소재지 창원에서 출마기념회를 개최한다.

손학규 고문은 대선 주자군 가운데 전당대회 성적이 가장 좋지 않다. 손 고문이 총력 지원했던 조정식 후보가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고문은 이날 말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여의도 인근에 경선 캠프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의원과 정동영 고문도 강기정, 이종걸 후보의 지도부 진입으로 체면을 살렸다. 정세균 의원은 이번

전대를 통해 당내 조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 아래, 대권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고문도 이종걸 후보가 막판 극적으로 지도부에 합류함에 따라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각 대선 후보 진영과의 이해 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어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선 틀 마련과 경선 관리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각 대선 주자 진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경선 방법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서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새 지도부

지난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새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및 후보들이 개표결과가 발표된 뒤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 "대선후보 경선 감동 드라마 만들 것"

민주통합당 이해찬 신임 대표는 지난 9일 "대선 후보 경선을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우리 당 후보를 만들고, 당 밖의 후보와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드는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결과는 정말로 당을 잘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깊이 새겨서 들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지원 대표와 역할분담을 제안했을 때 당원, 국민과 논의하지 못하고 제안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당 후보만 가지고 본선까지 갈지, 당 밖의 후보와 단일화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6월 한 달간 준비해서 빨리 당내 경선을 마무리

하고 밖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 출마시 1년 전 지도부에서 사퇴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의 경선이 보다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젊은 분이 많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이전 사퇴하신 분들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먼저 사퇴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분

들이 동의한다면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야권 연대 전략과 원칙은

▲민주진보 진영은 항상 연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빨리 잘 거둬나기를 중심으로 기대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김한길 최고위원과의 화합 및 당운영 방안은.

▲김 최고위원과는 오랜 친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창출에 함께 기여했다. 경선 과정에서 제가 소통을 잘못해서 불편함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장애를 가진 작은 사람이 아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6일만의 비대위원장 자리 내려 놓은 박지원

색깔론 공방·박근혜 검증 공세 맹활약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며 따라 36일 동안의 박지원 비상대책위 체제도 마감됐다.

지난 4·11 총선 패배로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가 이뤄진 직후,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지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별다른 대과 없이 당을 잘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박 연대(이해찬-박지원)의 논란 속에서

도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광범한 대결 구도를 토대로 6·9 전당대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여기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언론사 파업 사태, 색깔론 공방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분명한 각을 세우는 한편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 공세에 나서서 등 맹활약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마지막 확대간부 회의에도 여야의 이념 공방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색깔론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만 국민과 역사는 정당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분들에게 맹성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출신 3선 관록의 '정세균계'

민주 최고위원 강기정 의원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전남대 삼민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실형을 살았으며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우리당 후보로 출마, 승리했으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세균계' 인물로 분류된다.

▲고흥(48) ▲광주 대동고 ▲전남대 삼민부위 위원장 ▲광주 민주청년회 회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17·18·19대 국회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총선 과정 경선부정 인정 어렵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제기했던 경선 부정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화영 모바일경선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모바일 투표자료는 경선 이후 후보등록 만료일 다음 날인 지난 3월24일 자체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는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본
▶입찰반4명 / 이론반 24명
▶주 1회 / 3개월 완성

특수 물건만 취급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원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화영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를 튼튼케 하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원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